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1호 [주제 제2595호]

주체 109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음력 윤 4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세계인민들이 뜻깊은 호칭들로 열렬히 칭송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령도의 거장이시며 인덕의 최고화신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불세출의 위인으로 흠모하며 따르는 만민의 칭송열기가 날과 달이 갈수록 행성에 더욱 뜨겁게 끓어 치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력사의 돌풍을 쳐갈기시며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와 인간사랑의 세계적귀감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의 위인상에 끌리어 매혹된 세계인민들은 가장 숭고한 호칭들을 고르고팔라 그이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혜성처럼 솟아오른 젊은 령도자》, 《다재다박하신 천재》, 《백승의 전략가》,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은 세계를 휘감 을수 있는 커다란 권력력과 언그려올리는 커다란 위인》 등 세계 5대륙 그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위인칭송의 호칭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

의 첫 시기부터 숭고한 위인적 품모로 하여 만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었다.

주체99(2010)년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3차대표자회의는 민족자주위업계승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제적인 신뢰심에 받들려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계최고관심의 10대명인》으로 온 세계가 격찬하였다.

세계인민들은 김정은령도자의 위인적품모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하고 하면서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제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이었던 비슈와나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또 한번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격정을 터뜨렸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을 전하는 편지물들이 2011년 12월 세계의 이름있는 인터넷검색전문 웹싸이트에 단 10여일만에 6 740만건, 시간당 약 23만건

이나 오른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시 로씨야의 한 방송은 김정은령도자는 인류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의 거대한 관심을 모은 세계의 가장 젊은 령도자이시라고 전하였다.

영국순군정치연구협회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대국상의 나날에 펼쳐진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하시고 따사로운 사랑의 한푼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태양》, 《고결한 충정의 화신》, 《인민사랑의 화신》이시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 리론활동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고 충출한 령도력과 비상한 안개력,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적인 사변들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세계인민들은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수많은 호칭을 드려왔다.

《희세의 사상리론가》, 《현대정치, 현대군사학의 귀감》, 《세계적인 리상형의

지도자》, 《독특한 친화력과 매력 을 지니신 인민적 정치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로 이끌고싶은 세대의 위인,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몇세기에 한번이나 출현할수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 등의 호칭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의 열기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는분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의 인사도 허리굽혀 받아주시고 아이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도 차근 차근 가르쳐주시는 숭고한 영성을 비유느라면 국가령도자 이시라기보다 한집안의 가장 처럼 느껴진다고 한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글은 절세위인의 인민관, 후대관에 대한 인류의 칭송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어난 정치실력과 전격적인 외교활동은 위인흠모열기를 끝없이 고조시키고있다.

민족분열의 동태를 순간

에 녹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독특한 친화력, 로속한 협상력을 칭송한 《소탈하고 절제바르신 지도자》, 《전설속의 천재》, 《덕망이 높은 지도자》,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 등의 호칭들이 세계를 진감시켰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를 주도하시며 강인대대하고 명활 무쌍한 외교전략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국, 로씨야, 캄보자, 이란,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통신, 방송, 출판물들은 앞을 다투어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진 위인(명도자)》, 《세계정치계의 거성》으로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따르는 세계인민들의 열렬한 애호와 흠모의 세계가 어려있는 호칭들이 불세출의 위인을 모신 우리 령도의 영광과 긍지를 더해주며 세세년년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적령도자의 금언들

은 곧 그 사람이라 하였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수준과 품격 등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함축되고 세련된 언어수단으로 생활전력으로 교양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이나 문구들인민들은 구름같이 불리우며 후세에 전해져오기도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시던 연설이나 담화들, 그이께서 수많은 단위를 찾으신어 하시던 말씀 한마디한마디들은 친인민적이고 친현실적이며 통속적인 금언들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지도사상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길지 않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 공화국이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인민의 주인이 된 나라,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통속적으로 밝히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은 때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하였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살림집을 지어주는 군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물자를 내놓고 군인들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 하고 하면서 《특별차단소》라는것까지 만들어 놓고 인민들이 보내는 원호물자를 일체 접수하지 않는 《심경이》들이 피해복구현장에서 수없이 벌어졌다.

그해 10월 라선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현 투기간에 군민관계에서 제기된것이 없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그 지방의 일꾼은 밤낮으로 피해복구현투를 벌리는 인민군인들에게 라선시인민들이 여러가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가져왔지만 군인들이 일체 접수하지 않았다고 차에 실고온 원호물자들을 군인들의 숙영지 주변과 건설장구역에 몰래 넣어놓았지만 즉시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보내며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현투지휘부의 일꾼들에게 군인들이 부대르 돌아갈 때에도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떠나갈 때 배낭이 불룩하면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시었다.

떠나갈 때 배낭이 불룩하면 안된다. 통속적이면서도 해학적인 말씀으로 그이께서는 인민의 군대가 어떤 모습 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었다.

어느해인가 천리마라 일공장을 찾으신어 공장 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꾼으로부터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타일들을 창건지리건설장과 료라인

민유니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이 되셈이라고 하시었다.

건축물들의 안팎을 우리의것으로 단장할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속에 하신 이 말씀에 자력갱생이 제일이고 자기의것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이 더 궁지높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과학기술전당은 광명한 미래에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나 같다고 하시며 다가올화원 최첨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서의 사명도 부각시켜주시고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통속적으로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미남자설비라고 하신 평양곡산공장의 설비에는 자력갱생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에 대한 최상의 평가가 담겨져있고 석막대시양련어종어장을 물고기산원이라고 하신것은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종어장의 전변에 대한 명쾌한 비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이 깊으면서도 통속적인 표현들로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게 구사하시는 말씀 구절구절에는 그의 인민적이며 비범한 위인적품모가 어리여있다.

황혜영

자력갱생 - 조선의 기적을 안아오는 비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수호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로씨야, 에집트의 출판보도물들이 칭송하고있다.

로씨야의 테레-로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뛰어난 선견지명으로 국가발전 을 이룩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강조하시는 자력갱생로시는 조선의 실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것이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는 오늘의 세계는 남에 대한 의존이 안정되고 믿음직한 발전을 가져올수 없음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특히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도립안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조건에서 자기의 국가발전 로선을 정확히 선택하는것은 조선에 있어서 첨예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조선이 내세우는 자력갱생은 결코 일시적인 위기대응책이 아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주제사

상에 기초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지난 8년간 조선이 걸은 로정과 그 나날에 이룩된 창조물들은 자력갱생의 진리를 더욱 실증해주고있다.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에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길이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황시적인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도록 하시었다.

에집트신문 《알 나쉬르》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바른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어 인민들이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증철될수록 승리를 확신하며 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2019년말 조선에서는 기적이 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는 자력갱생의 산물들이 련이어 출몰되었다. 일일단결된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여기에 조선이 눈부신 기

적을 안아오는 비결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할대 한 사상과 로선이 제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김정은동지의 선견지명의 령도를 다시금 실감케 한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인터넷홈페이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을 위한 사업적극 추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앞선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농장에서는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지위계계를 새롭게 완비하고 영농공정별비배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있다.

과일나무의 통기조건과 해비침조건을 개선하고 꽃눈형성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공정의 하나인 가지자르기에 힘을 넣어 품종, 년생별특성과 꽃눈상태에 맞

게 가지줘여주기, 갱신가지유을 제때에 함으로써 그루당 많은 꽃눈이 움트게 하였다.

농장에서는 과일나무의 영양을 높여주기 위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거름기와 비료주기를 질적으로 진행하였다.

호린별, 필지별에 따라 시비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에만도 1 800여t의 유기질 비료와 4 300여t의 흙보산 비료를 마련하였으며 자금 비료를 정보당 30t이상 배

으로써 꽃눈분화율을 높이고 있다.

포전기상관측기를 리용하여 병해충의 발생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효능높은 생물농약을 시기에 맞게 분무해 줌으로써 병해충피해를 극력 줄였다.

절세인민들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뜨겁게 깃든 농장을 영원한 청춘과원, 사회주의대관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농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원풍에 레련에 보기 드문 사과꽃바다가 펼쳐졌다.

본사기자



다가오는 5월 25일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지 65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55년 5월 25일, 이날은 재일동포들이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함으로 뜻깊은 날이다. 이 력사의 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높은 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있게 되었다.

공화국인민들은 총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총련동포들을 더없이 사랑한다. 어머니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볼때면 오래동안 헤어졌던 한식물을 만난듯 눈길에는 반가움이 한껏 어리고 바람새찬 이역방에서 애국애족의 한길을 꽃같이 걸어나가는 그들에 대한 미더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그중에서도 민족교육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손길 아래 민족교육이 찬란히 개화발전해온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교육이라는 뿌리에서 총련이라는 애국의 거목이 자라나 더욱 무성해졌다.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애국위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 주는 만년대계의 사업인 동시에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을 짓부시는 위력한 무기로 되어왔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16일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얻을것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일본우익단체들이 총련과 조선대학교를 대상으로 감행한 만행에 대해서 지금 은 거세가 커다란 격분으로 치를 떨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10일 일본우익단체들이 조선대학교앞에서 《조선 대학교는 살인대학이다》, 《도교도는 조선대학교의 법인인가를 취소하라》 등의 게시판과 횡단막을 들고 총련과 조선대학교를 악랄하게

중에서도 민족교육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손길 아래 민족교육이 찬란히 개화발전해온 력사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교육이라는 뿌리에서 총련이라는 애국의 거목이 자라나 더욱 무성해졌다.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애국위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 주는 만년대계의 사업인 동시에 일본반동들의 민족동화책동을 짓부시는 위력한 무기로 되어왔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16일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얻을것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일본우익단체들이 총련과 조선대학교를 대상으로 감행한 만행에 대해서 지금 은 거세가 커다란 격분으로 치를 떨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10일 일본우익단체들이 조선대학교앞에서 《조선 대학교는 살인대학이다》, 《도교도는 조선대학교의 법인인가를 취소하라》 등의 게시판과 횡단막을 들고 총련과 조선대학교를 악랄하게

중에서도 민족교육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지난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8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주시었다.

지난 수십년간 은혜로운

지금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학교들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유능한 민족인재, 참다운 애국자들로 더 잘 키우기 위한 사업을 즐기 차게 벌리고있다.

민족교육원리를 옹호확대 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사업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있다.

민족교육사업을 조직건설 과 애국활동의 중심에 놓고 학생인입사업과 민족교육의 질제고, 우리 학교를 돕는 운동이 전조직적, 전동포적 으로 벌어지는 속에 우리 학교유치반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적용시키기 위한 투쟁도 강도높이 전개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힘과 의지이다.

일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은 결코 몇몇 강대국들의 란동으로 볼수 없으며 이것은 대조선제대시를 일본국적으로 내세우고 사회전반에 조선인배타의식을 체계적으로 뿌리깊이 주입시키고있는 일본정부에 의해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조직적, 국

적어부터 말은 곧 그 사람이라 하였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수준과 품격 등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함축되고 세련된 언어수단으로 생활전력으로 교양적이며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이나 문구들인민들은 구름같이 불리우며 후세에 전해져오기도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시던 연설이나 담화들, 그이께서 수많은 단위를 찾으신어 하시던 말씀 한마디한마디들은 친인민적이고 친현실적이며 통속적인 금언들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의 지도사상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길지 않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 공화국이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인민의 주인이 된 나라,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통속적으로 밝히시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라선시가 큰물피해를 입은 때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하였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살림집을 지어주는 군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물자를 내놓고 군인들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 하고 하면서 《특별차단소》라는것까지 만들어 놓고 인민들이 보내는 원호물자를 일체 접수하지 않는 《심경이》들이 피해복구현장에서 수없이 벌어졌다.

그해 10월 라선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현 투기간에 군민관계에서 제기된것이 없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었다.

그 지방의 일꾼은 밤낮으로 피해복구현투를 벌리는 인민군인들에게 라선시인민들이 여러가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가져왔지만 군인들이 일체 접수하지 않았다고 차에 실고온 원호물자들을 군인들의 숙영지 주변과 건설장구역에 몰래 넣어놓았지만 즉시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보내며 대하여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현투지휘부의 일꾼들에게 군인들이 부대르 돌아갈 때에도 인민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떠나갈 때 배낭이 불룩하면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시었다.

떠나갈 때 배낭이 불룩하면 안된다. 통속적이면서도 해학적인 말씀으로 그이께서는 인민의 군대가 어떤 모습 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었다.

어느해인가 천리마라 일공장을 찾으신어 공장 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꾼으로부터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타일들을 창건지리건설장과 료라인

민유니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이 되셈이라고 하시었다.

건축물들의 안팎을 우리의것으로 단장할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속에 하신 이 말씀에 자력갱생이 제일이고 자기의것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이 더 궁지높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과학기술전당은 광명한 미래에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나 같다고 하시며 다가올화원 최첨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서의 사명도 부각시켜주시고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라고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통속적으로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미남자설비라고 하신 평양곡산공장의 설비에는 자력갱생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에 대한 최상의 평가가 담겨져있고 석막대시양련어종어장을 물고기산원이라고 하신것은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종어장의 전변에 대한 명쾌한 비유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이 깊으면서도 통속적인 표현들로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게 구사하시는 말씀 구절구절에는 그의 인민적이며 비범한 위인적품모가 어리여있다.

황혜영

본사기자